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ANUARY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9



2023년 --새해 노래 / ‘바랬노니, 기도 하노니’

‘역병수난’ ... (혼돈)
 ‘인곤마핍’ ... (혼동)
 ...홀 홀 털쳐냈는가(타파)/
 우리 훨 훨 벗어났는가(회복)

(우여곡절 지낸
 옛그젯 세월
 다 다 지난 세월)

...

여명엿 ‘호시레!’ ~

희망의 벽찬 새해(‘계묘년’)
 동이 텃는거이

우리 들 영겨

만 만세
 두루 감사한거이

우리 다 얼켜설켜
 새록 새록
 서루 고마운거이

바랬노니 ... (Blessed and Wished
 Y'all

For Happy a Thanksgiving/
 Merry a Christmas ...
 And Wonderful a New Year)

기도 하노니 ... (Do Bless and to do
 Pray

For Blissful an Hallelujahs 감읍 찬양

할 은총이여 감사여)

For

For as such and so much more

To Join the Journey

for our sound Relationships to

Our Neighbours/the World and

Nature

...

... 내내

줄곧 들 즐겁기요

무릇 사뭇 행복 들 하기로

부디 무탈 건강 들 하기로.

시:이 흥빈(의대 57)

사진: 이형순(미대61)

2023년 신년교례회

새해 회원 전체가 모이는 첫 행사로 신년교례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임 장소는 Tenafly, NJ에 있는 Korean Community Center입니다.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2015년에 건립한 이 회관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층의 대연회장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으니 날짜를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3년 4월 1일 (토)

시간: 오후 4시 - 9시

회비: \$120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kim@keiusa.com

NY에서 오시는 분을 위한 교통편을 검토중이며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Florida 겨울 골프 여행

Florida 동창회 초청 겨울 골프여행 숙소로 우선 4 bed room 주택 2채를 임대하였으며, 적절한 골프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골프여행에 관심있는 회원은 연락 주시기 바라며, 경비는 실비 분담 개념으로, 6박 5일 골프일정에 일인당 \$1,100 로 책정 하였습니다.

여행지역: West Palm Beach-Fort Lauderdale area

일정: 2023년 1/22(일)~28일(토), 월-금요일 5 Round golf play

집결공항: West Palm Beach Airport(PBI),

참가회비: ; \$1,100,

숙소 및 공동비용500

골프600 (Green fee, lunch, dinner, tip) 120/day

연락 및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새해를 맞으며

■ 회장 홍종만 (공대64)

바쁘게 지내온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떠오른 새 태양 덕분에 이번 계묘년에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희망찬 계획과 더욱 발전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친구에게서 전해 받은 이채 시인의 詩句를 제 나름으로 음미해 봅니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이 아니지요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 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숙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새벽 강가, 홀로 나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흥갈색 노을처럼 아름다운 실버들이여!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며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 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의 교훈이 거름처럼 쌓여가니 내 내 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하노라!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특히 나이가 드는 노년에 이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행복과 불행의 요소들을 곱씹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에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가족과 친구’ 그리고 ‘문화 생활’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내일의 희망을 주고 처음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갖고 꿈을 키울 때 그대, 실버들이여! 꿈이 있는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뜻이 있어도 펼치지 아니하면 문은 열리지 아니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아니하면 길은 가지 않습니다

책이 있어도 읽지 아니하면 무지를 면치 못하고

뜰이 있어도 가꾸지 아니하면 꽃은 피지 않겠지요

부지런한 사람에겐 하루해가 짧아도 게으른 사람에겐 긴 하루가 지루해

생각은 있어도 실천이 없다면 애당초 없는 생각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그대, 실버들이여!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포기말은 하지 않기로 해요

저희 골든클럽에는 함께 어울릴 친구도 많고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통하여 건강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키워 나가는 또 한 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2년 뉴욕동창회 송년회

■ 금영천 뉴욕지역 동창회장 (약대72)

뉴욕지역 동창회는 12월 3일 (토) Doubletree Hotel에서 제43대 송년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11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제1부는 동창회 예산집행 내역 보고와 오순문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제2부는 금영천 회장과 성기로 이사장의 인사말과 흥종만 골든클럽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8명의 장학금 선정자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2022년 장학금 수상자는 David Pedo (이전구 특지장학생), 소현지(법대 2010), 조한나(음대 2021), 이종성(사회대 02), 권연진(미대 94), 정석(동문가족)과 강민주(동문가족) 총 7명이었다.

제3 부에는 이준희 음대회장과 4명의 동문 유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피아노 황소희(만하탄 음대 박사과정), 테너 박종현(예일대 오페라과 석사), 소프라노 한예린(만하탄 음대 석사), 베이스 박영관(줄리아드 음대 석사과정) 동문 들의 주옥같은 노래로 참석한 동문들에게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

만찬 후의 제4부 순서에서는 MC 디카프리오의 진행으로 특별순서로 박경희(음대57) 동문의 Liszt의 Hungarian Rhapsody No. 12 피아노 독주가 있었다. 8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악보 없이, 훌륭한 연주로 많은 동문들의 찬사와 경의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장기 자랑, 상품 추첨 등으로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한 동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이어 댄스로 2022년의 송년회를 아쉽게 장식했다.

Covid 19 변종과 극심한 독감 등으로 참석을 자제하신 많은 동문님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2022년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에 보내준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장학금 수여 뒷줄 (금영천, 성기로, 이전구)
앞줄 (소현지 조한나 권연진 이종성 David Pedo 김병순)



김영덕 박동명 동문의 건배사



교가 제창



피아노 독주하는 박경희 (음대57) 동문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 허유선 (가정83)

지난봄 약대 성기로 선배님께서 작은책을 한권 선물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본인의 자서전이며, 신앙간증인 “면서기”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골든클럽의 선배님들의 자서전이나 인생의 회고담을 들려주시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많은 지혜와 격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습니다

『나의 일생에 가장 큰 전환점 이 된 사건은 두가지 있습니다 . 첫번째 일은,11살때까지 명랑하던 나의 성격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주 내성적 으로 변해서 선생님의 질문에 알고 있는 답도 말도 못할정도로 내성적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힘들게 우리 사남매를 키우시며 소심한 성격의 공부를 잘 하던 나에게 선생님의 권고대로 그냥 시골에서 공무원 (면서기) 이 되어서 살라고 하셨는데, 서울에 계신 먼 친척분을 어머니께서 돌봐드리면서 서울로 오게 되어 살면서,학비가 저렴하고 취업도 보장된 서울대 약대를 가라고 권하여 주어서 약대를 가게되었습니다. 졸업후 약국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길도 걸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심한 불면증 과 두통으로 고생을 하면서,힘든 시간을 보냈고,아픔과 절망으로 미래를 생각할수 없는 나에게 어느분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어 3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고생스러웠던 지병이 치료되는 기적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번째 일은,어린 3 남매와 아내를 데리고 1973년 미국으로 오게 된것입니다. 1973년 미국생활은 한국과 비교하면 아름답고 좋은곳 이었고,미국생활 정착의 3년은 좋은 목사님과 고용인을 만나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파서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를 포기한일,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아주 실패한일,이로 인해 얼굴이 돌아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어있었던 일 등 많은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 올 때의 계획처럼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학교에서 교수로 남고 싶었던 나의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결국은,모든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인 후러싱에서 이민 초기에 뉴욕에 오신 교포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22년 동안 교포 약국을 경영했고 만 70세에 은퇴한후,선교사로 5년을 봉사했고 ,76세 의 나이로 한의학공부를 시작하여,선교지에서 중요한 침술사역으로 봉사하기 위해,80세의 나이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앞으로 침술 사역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지난해 코비드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나의 삶에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결국은 나를 황금같이 단련한 믿음의 시간으로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곽선섭 회원이 이준행 명예회장님 방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이 회장님은 지난 8월 22일 장출혈로 North Shore Hospital 응급실에 입원한 이래 치료가 끝나면 병원내 Rehab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동으로, 네번이나 옮기시면서 운동치료를 받고 계신데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식사도 하시고 재활치료 운동실도 보여주셨으며 회원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홍종만 회장은 손경택 전회장님댁을 방문하고 손회장님 사모님 방문안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어지럼증이 심하여 골프대회등 각종 행사에 참석 못하시던 손경택 전 회장께서 사모님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내년 봄에는 골프등 야외 행사에 참가하여 회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하며

■ 오순문(사대68)

만수무강과 유쾌한 노년생활

무병장수(無病長壽)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건 비단 노인들만의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나이는 훈장이다. 물론 운도 좋았겠지만, 노인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각자의 생존 비법들이 있다. “강한 자가 살아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란 말이 있듯이, 환경에 잘 적응해 왔던 노인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 위험한 일에 미리미리 대처하고, 남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피해왔고, 무리하지 않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산으로 들로 나서는 등,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해야겠지만, 노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씩씩하게, 기죽지 말고 살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신체적으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 나이에 맞게 보완해 주거나 점검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첫째, 아프거나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 조기발견과 조기 대응이면 어떤 병과도 싸울 수가 있다. 둘째, 금전거래,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에서 걱정거리를 없애고, 주위 환경을 모두 단순화시킨다.

세째,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한다. 무슨 일이든지 징조가 있게 마련이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조인다. 소변 색깔이 좋다. 목욕탕에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졌다. 뭘 자주 잃어버린다. 운전티켓을 자주 받는다. 말이 꼬이고 느려진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등, 우선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초기에 발견하면 뭐든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징조들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넷째, 젊어서도 안 하던 일들은 아예 하지 않는다. 젊어서도 못 하던 높은 산 오르기, 장시간 운전하기, 지붕 수리한다고 사다리 오르기, 눈 치운다고 빙판길 나다니기 등, 익숙하지 않은 일들은 피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골고루 맛있게 잘 먹고, 잡념 없이 깊은 잠을 푹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보조 영양제도 필요한 건 적당히 보충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다. 과묵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텔레비라도 항상 틀어놓고 영화도 본다.

일곱째, 노년은 기본적으로 군대의 말년 병장과 같은 거다. 만고 뎡이다. 즐겁게 놀고, 좋은 거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늘어지게 자도 된다. 구태여 근심걱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구조다. 돈도 저축보다는 쓰는데 주력한다.

여덟째, 노년의 삶에서는 Risk관리가 핵심이다. 심장, 폐, 당뇨, 고혈압, 정신, 화재, 미끄럼, 넘어짐, 부딪침, 재정문제, 운전, 등 모든 면에서 자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미국에서는 40-50 년 전 anti-aging(노화방지)란 말이 유행했었다. 늙는 것을 방지한다는 약들과 함께 ‘Aging is

disease, 노화는 질병이다’란 자신감있는 구호까지 나왔다. 금방이라도 진시황의 불로초를 캐올 기세였다. 호흡할 때 발생되어 몸속에서 세포를 노화시킨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산화방지제(anti-oxidant)로부터 인삼 마늘 강황 양파 멜라토닌 블루베리 호두 녹차 등이 노화를 방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축축한 피부와 노화를 방지하는데 산화방지제가 좋다는 정도로 열기가 식었다. 그후 늙는다는 건 세포가 늙는다는 거고, 수명은 세포가 재생되는 횟수(어린애 100회, 노인 20회, 고양이 8회, 말 20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세포의 재생횟수는 염색체의 양끝 꼬리부분인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에 좌우된다는 걸 알아냈다. 나이가 들수록 ‘생명의 시계’라 불리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 텔로머라제(telomerase)효소로 방지시켜 세포, 즉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유적공학적인 시도가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말하자면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불로(不老不死)와 영생(eternal life)을 꿈꾸어 왔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은 후 시리우스 별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고대 왕들은 죽은 후에 같이 데려가서 살려고 노예와 가족들을 순장시켰다. 삼천갑자 동방삭은 1만 8천년을 살았다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단군세기의 인물들 또한 수백년씩 살았다고 한다. 20세기 들어서는 급냉시켰던 물고기가 미지근한 물에서 해동되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는, 사람도 냉동시켰다가 먼 미래에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600-700 구의 인간들이 냉동보관되고 있다. 근래에는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줄기세포를 냉동보관시켜 주는 것이 유행인데, 훗날 필요할 때 심장이나 신장 허파 등의 신체부위로 분화시켜 사용하겠다고 한다. 수만 년 전에 죽은 맘모스를 얼음 덩어리에서 꺼내 유전자를 채취해 살아있는 코끼리의 자궁에서 키워 맘모스를 복원하려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의 씨앗과 유전자를 보관해 지구대멸망에 대비하겠다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계획들은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숨은 뜻인지도 모른다.

사후세계

분자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명의 근원(The origin of life)에 대해서는 실마리라도 찾아가고 있지만,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하는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2600년전 스타르타의 극락과 지옥의 구도에서 큰 변화가 없다. 천당과 지옥, 전생, 환생, 부활, 윤회, 영생, 임사체험, 영매, 등은 영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그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종교와 샤머니즘, 믿음과 초능력, 초자연현상의 영역에 머물러있다. 설혹 사후세계를 잘 안다 해도 뭘 어찌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았듯이 자기 뜻대로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천국, 저승, 환생, 등 각자의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믿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마침내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구에 와서 잘 놀다 원래 별로 돌아간다고 쉽게 생각하면,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정들었던 사바의 세계에 대해 애착과 미련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팔십 평생 처음한 6주 한국여행

■ 김 한중(의대 56년)

여행은 항상 사람을 흥분시킨다. 준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 뇌와 몸과 마음에 새겨주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해서 사람들은 그저 떠난다. 이번 골든클럽을 따라 떠난 여행은 나에게서는 우리 의대 60년 졸업 기념행사와 늘어가는 동기들을 만날 기회를 가질 겸 떠났던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거의 6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은 여러 번 가봤으니 무슨 그렇다 할 새로운 것이 나를 놀라게 할 것이라 기대를 전혀 안 했다. 6주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도 한두 번 해봤다. 웬걸 Kennedy 공항을 떠나 Korean Air 좌석에 앉자마자 나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행기의 청결함, 승무원들의 친절함, 철저한 규칙 지키기, Drink, Meal의 완전함, 깨끗한 변소 등은 미국 항공기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국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부터는 Wow! 소리가 너무 자주 나와 내 자신이 무안할 정도였다.

손대홍 동문이 인도하는 한국 여행은 한국 도착 3일째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는 그분이 사업가인 줄만 알았지, 심리학을 전공한 “완벽” 주의자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서울 대학교를 나왔으면 나왔지 왜 늙은이들을 끌고 대학엔 왜 가나?”하며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웬걸 나는 또 Wow!를 터뜨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관악 Campus는 우리가 졸업 후 미국서 training받고 practice 하느라 눈코 뜰 수 없을 때 관악산 밑의 golf 장을 빼앗다 싫어 하여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큰 palace같은 campus를 지었으니 real estate에 돈을 다 써서 서울대학교에 연구자금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음 순서는 KTX로 목포로 이동은 짐 하나 간수 얇고 두시간 limousine에 앉아 glide 한 것만 생각이 났다. 아무도 기차표 check도 하나 안 했다니까 이것이 paradise가 아니고 뭐지? 여수, 통영, 거제도, 외도, 부산, 해운대, 속초를 꿰뚫으며 먹거리 음식점만 찾아

다니니까 이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우리 “부대”는 먹기 위해서 사는 인간들을 만들더라고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 했다고 먹기쟁이 상을 또 주더라고요.

손대홍 동문이 설계하고 인도한 이번 골든클럽 한국 여행은 제 팔십 평생 어느 때 보다 흥분을 더 많이 시켜준 여행이 됐다. 나의 나머지 4주에도 여전히 한국이 세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완벽한 Infrastructure, 지하철, 버스, 택시, 저렴한 물가, Honor System을 사용하는 음식점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의 자존감, 자존심이 지금 한국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의대 60년 졸업 기념회의 준비는 일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pandemic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정해 가면서 드디어 10월 17일에 Lotte Hotel에서 미주 동문 5 couples 와 한국 동문 22명이 가족과 함께 의대 학장, 병원장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우리 졸업생 123명은 반세기 50년을 넘는 동안 국내와 세계 각처에서 의술을 베풀 것에 찬사를 올렸으며 또한 과거 60년 동안의 우리 의대 발전은 국민의 건강 승진에 크나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알려 주었다.

기념식에서는 Wine Toss와 5 course의 만찬을 즐겼으며 10년후 70년 졸업 기념 때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또한 우리 서울 의대의 발전 기금으로 미국 동문 14명이 모금한 \$75,000은 의과 대학에 국내 동문 24명으로부터의 4천 2백만원의 의과대학 동창회에 각각 증정하였다.



의과대학 16회 졸업60주년 기념



졸업60주년 졸업기념회

Review of 2022 QATAR World Cup Final Tournament (TMT)

■ 정도현(공대57)

WOW !! What a Championship game it was. Congratulations to Argentina and particularly to Lionel Messi! It was a glorious finale for The Greatest Soccer Player of All time. I will put him equal to "The Soccer King" PELE. Too bad that France missed three great players with injuries including N'Golo Kante who may be the only player on earth has ability & hustle to neutralize Messi.

Again, the final was between Europe and South America, but I saw the trend that rest of world are catching up to traditional powerhouse axis of Europe - South America. Morocco is right up there with world elite, so as many other African teams. They are physical and athletic, and many of them plays in European elite leagues. Very soon they will become teams to contend with. For the Asian team, Japanese Team impress me. Well structured, well coached. They play as a team with solid midfielders.

Most of the traditional powerhouse teams from Europe and South America are in transition. It will take many years to restructure and that may open chance for teams from other regions. Some of the surprises included S. Arabia's upset over Argentine. This I think "Blessing in Disguise". It happened during the Group Stages instead of Knockout Phase. This upset made Argentine refocus and become the Champion. Of course, Morocco' advancement all the way to Semi-Final should be credited to players and the coaching staff. They played fundamentally solid defensive game with the team's Motto, "If we cannot win, we cannot loose" and " The Whole is Greater Than Sum of Its Part"

There were a few disappointments -- Failure of Belgium's Golden Generation, 4-time Champ Italy missed Final TMT,

Germany's failure to advance to Knockout Phase, Favorite Brazil's inconsistency, and many more.

Korea's failure – Too bad that SH Min is injured and out of shape, but team is fundamentally not structured well. Korea has fairly good offensive players. But the team should be structured from bottom up. Mediocre Defensive line staying too far back that gives too much room for opponent. It looks

like they do not know defensive tactics called "Offside Trap" which requires good timing and instinct by 4-man back line. Korea do not have Midfield Play makers. Midfielders are the "Engine of the Team." Korea also lacks the tenacity and mental courage. I cannot believe what I am seeing during the Brazil game when a blond hair Brazil player was doing fancy moves and scores. Several Korean defenders just next to him just look or admiring. You never let him do that, "Chop him down, Body slam him." Maybe Red Card & Penalty. So, what! The game was already lost by then. It was a humiliation. Show them what we are made of. We are not BTS group playing out there. I guess somewhat

harsh assessment on my part.

Team to watch for the next World cup in North America in 2026 are England and Team USA. Unlike the most of European teams in rebuilding mode England is in there. Golden Generation with good mixture of veterans and talented young bloods. Team USA has core of young talented players. With 4 more years of experience Team USA will become powerhouse. Wouldn't it be another dream match-up England vs USA !!



회원 명단 (113명 / 2022-12-24)

| | | | | | |
|------|-----|------|-----|------|------|
| 강교숙 | 김병순 | 박희병 | 유무영 | 임창우 | 최학주 |
| 강에드 | 김상만 | 배상규 | 윤선구 | 임호순 | 주재욱 |
| 강영선 | 김승호 | 성기호 | 윤종숙 | 정도현 | 한영수 |
| 계동휘 | 김영덕 | 손갑수 | 윤현남 | 정수일 | 한응오 |
| 고애자 | 김영만 | 손경택 | 이강홍 | 조달훈/ | 한대진/ |
| 곽상준 | 김우영 | 손대홍/ | 이민제 | 조승자 | 안용희 |
| 곽선섭 | 김익성 | 남종현 | 이상무 | 정해민 | 허응웅 |
| 곽승용 | 김인형 | 손옥화 | 이준 | 조상근 | 허유선 |
| 구달희 | 김정필 | 송근숙 | 이대연 | 주상선 | 홍사만 |
| 권문웅 | 김종을 | 송용길/ | 이용대 | 주재양 | 홍정표 |
| 권정덕/ | 김창수 | 송현자 | 이종대 | 진봉일 | 홍지복 |
| 홍선경 | 김치갑 | 송학린 | 이전구 | 천병수/ | 홍종만/ |
| 권영대 | 김태일 | 송혜순 | 이종석 | 천종화 | 홍예경 |
| 권태전 | 김한중 | 신진식 | 이준행 | 최구진 | |
| 금영천 | 김현중 | 신응남 | 이준희 | 최병우 | |
| 김광수 | 노용면 | 오순문 | 이태호 | 최수용 | |
| 김광현 | 민준기 | 오용호 | 이행순 | 최순재 | |
| 김동건 | 박기환 | 오유섭 | 이흥빈 | 최준희 | |
| 김문경 | 박상원 | 오인석 | 임도혁 | 최진영 | |
| 김문언 | 박준구 | 우규환 | | 최철용 | |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5명 / \$500 / 2022-12-24)

권문웅
김상만
정수일
최수용
한용오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2-12-24)

| | | |
|-----|---------|------------------------------------|
| 1월 | 22~28일 |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
| 2월 | 9일(목) |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
| 4월 | 1일(토) |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
| | 20일(목) | Golf Outing -Sunset Valley |
| 5월 | 18일(목) |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
| | 25일 (목) | 여성회원 피크닉 |
| 6월 | 8일(목) |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
| | 15일(목) |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
| 7월 | 13일(목) | Golf Outing -Sunset Valley |
| 8월 | 10일(목) | Golf Outing |
| | 19일(토) |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80명 참가) |
| | 14일(목) |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
| | 19-30일 | 한국방문여행 |
| 10월 | 12일(목) |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unset Valley) |
| 11월 | 2일(목) | Golf Outing-Rockleigh Golf Club |
| 12월 | 9일(토) |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
| 1월 | 22-28일 |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
| 3월 | 30일(토) | 신년교례회 - KCC |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1명 / \$1000 / 2022-12-24)

최수용 10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12-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12-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강영선 (공대50) 한용오 (대학원)
권영대 (공대68) 홍사만 (문리61)
권태전 (사대54)
김광수 (공대72)
김종을 (사대51)
손경택 (농대57)
정도현 (공대57)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